

세미나자료 2024-03

2024년 제2차 육아정책 심포지엄

# 저출생 시대, 아동의 현재 그리고 유망한 미래를 위한 정책 다지기

일시

2024. 7. 24 (수) 14:30 - 17:00

장소

포스트타워 21층 스카이홀

주최

육아정책연구소



육아정책연구소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 저출생 시대, 아동의 현재 그리고 유망한 미래를 위한 정책 다지기

- ❖ 2024. 7. 24 (수) 14:30 - 17:00
- ❖ 포스트타워 21층 스카이홀 (서울시 중구 소공로 70)

사회자 ▶ 김은영 영유아교육·보육정책연구실장 (육아정책연구소)

시간	내용
14:10~14:30	등록
14:30~14:40	개회 및 참석자 소개 환영사 ▶ 황옥경 소장 (육아정책연구소) 기념사진 촬영
14:40~15:30	<b>[1부] 주제 발표</b>
	발표 1. 지역 협력을 통한 영유아교육·보육 미래 구상 ▶ 강은진 선임연구위원 (육아정책연구소)
	발표 2. 늘봄학교 정책동향과 향후과제 ▶ 이성희 연구위원 (한국교육개발원)
	발표 3.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두툼하고 촘촘한 방과후 지원체계 ▶ 구자연 부연구위원 (육아정책연구소)
15:30~15:40	휴식
15:40~16:40	<b>[2부] 전문가 토론</b>
	좌 장 ▶ 장명림 석좌연구위원 (한국교육개발원) 토 론 ▶ 김수현 사무관 (교육부 영유아정책총괄과) ▶ 김민희 교수 (대구대학교 교직부) ▶ 김성식 교수 (서울교육대학교 초등교육과) ▶ 권혜진 교수 (나사렛대학교 아동심리교육학과) ▶ 이해민 부모
16:40~17:00	질의응답 및 종합토론 마무리 및 폐회





# CONTENTS

**환영사** 황옥경 소장 (육아정책연구소) ..... 1

## 1부 주제 발표

발표 1. 지역 협력을 통한 영유아교육·보육 미래 구상 ..... 5  
▶ 강은진 | 선임연구위원 (육아정책연구소)

발표 2. 늘봄학교 정책동향과 향후과제 ..... 21  
▶ 이성희 | 연구위원 (한국교육개발원)

발표 3.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두툼하고 촘촘한 방과후 지원체계 ..... 33  
▶ 구자연 | 부연구위원 (육아정책연구소)

## 2부 전문가 토론

▶ 김수현 | 사무관 (교육부 영유아정책총괄과) ..... 47

▶ 김민희 | 교수 (대구대학교 교직부) ..... 48

▶ 김성식 | 교수 (서울교육대학교 초등교육과) ..... 50

▶ 권혜진 | 교수 (나사렛대학교 아동심리교육학과) ..... 52

▶ 이해민 | 부모 ..... 55



안녕하십니까. 오늘 2024년도 제2차 육아정책 심포지엄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모두가 실감하는 이 저출생 시대에, 우리사회의 미래인 아동 한 명 한 명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이 그 어느 시대보다 중요한 시점입니다. 저출산고령사회 위원회는 지난 6월 19일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에서, 일·가정양립지원, 주거 및 결혼·출산·양육과 함께 교육·돌봄을 주요 분야로 발표하였습니다. 우리사회 아동의 교육·돌봄의 방향성이 우리사회의 미래의 방향성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지난 6월 27일에 교육부는 유보통합 실행안을 발표함으로써, 지난 30년 간 논의를 이루어온 유보통합이 현장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하는 첫걸음을 내딛고 있는 시점입니다.

육아정책연구소는 연구소 설립 이후 지속해서 누리과정을 비롯한 유보통합 추진 및 정착, 영유아 돌봄공백 해소를 위한 다양한 연구를 수립해왔습니다. 특히, 누리과정 해설서 개발 및 개정연구를 비롯하여, 컨설팅, 평가척도개발, 지역사회 연계 및 누리과정포털 운영 등 유아대상 교육과정 개발과 확산을 위해 노력해왔고, 유보통합 논의 후에는 0-2세 교육과정 개발 연구를 수행하여 영유아 교육·보육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오늘 심포지엄에서는 ‘저출생 시대, 아동의 현재 그리고 유망한 미래를 위한 정책다지기’라는 큰 주제 안에서 대한민국의 아동의 교육과 보육을 위한 논의를 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지방분권 시대를 맞아 지역 간에 차이가 나는 영유아 교육·보육에 대한 논의부터 지역기반에서 다양한 협력을 통한 실천과제를 파악할 것입니다. 초등학교 늘봄학교의 운영 모형과 앞으로의 추진 로드맵을 알아보고 이를 안착시키기 위한 향후과제에 대해 들어볼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유치원 방과후 과정을 중심으로 영유아기관에서의 교육·돌봄의 촘촘한 지원을 위한 현재의 쟁점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향후과제를 확인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돌봄 공백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에서, 우리는 지역사회 협력을 통해 교육의 질을 제고하고, 늘봄학교 정책 추진 및 방과후 과정 운영 방향에 대한 종합적인 진단과 논의를 통해 교육과 돌봄의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또한, 지역 기반 교육과정과 방과후 운영을 통한 공교육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지역 유아교육 및 보육 통합 기반을 마련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러한 논의를 통해 아동에게는 건강하고 행복한 교육·보육 환경을, 부모에게는 부모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함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심포지엄 발표를 맡아주신 육아정책연구소 선임연구위원 강은진 박사님, 한국교육개발원 이성희 연구위원님, 육아정책연구소 구자연 부연구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좌장으로 참석해주신 장명림 한국교육개발원 석좌연구위원님을 비롯하여, 토론으로 참석해주신 교육부 영유아정책총괄과 김수현 사무관님, 대구대학교 김민희 교수님, 서울교육대학교 김성식 교수님, 나사렛대학교 권혜진 교수님, 이해민 부모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귀한 시간 내주셔서 걸음해주신 모든 원내외 참석자 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끝으로, 오늘 이 포럼을 통하여 우리나라 아동의 교육·보육 정책이 우리나라의 미래인 아동을 위한 노력임을 실감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7월 24일  
육아정책연구소장 황 옥 경

1부

---

주제 발표



주제발표 1

---

# 지역 협력을 통한 영유아교육·보육 미래 구상


---

강은진

선임연구위원 (육아정책연구소)







# 지역 협력을 통한 영유아교육·보육미래 구상

강은진 선임연구위원(육아정책연구소)



육아정책연구소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 목차

- 01 지역기반 교육력 제고의 중요성
- 02 지역기반 유아교육·보육 협력의 현재
- 03 지역기반 영유아 교육력 제고를 위한 미래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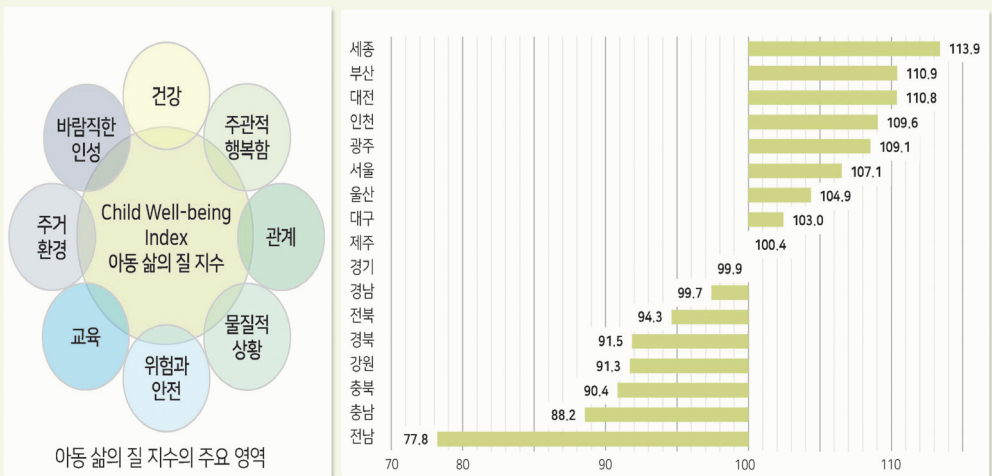
# 01

## 지역기반 교육력 제고의 중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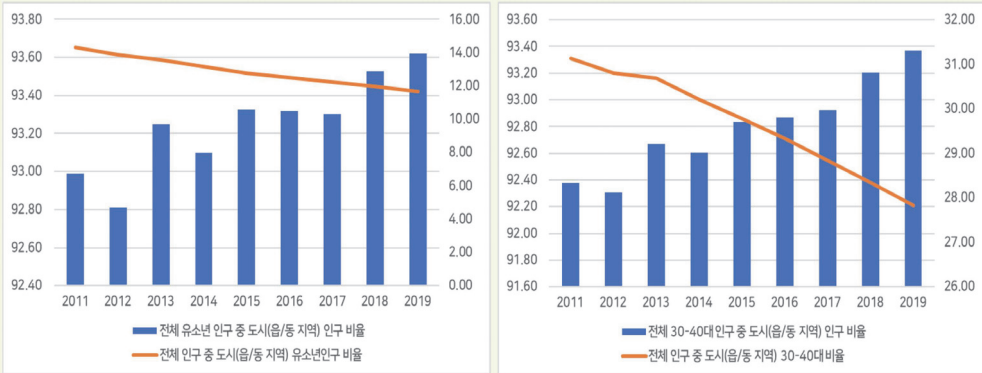
### 01 유아의 삶의 질에서 지역적 격차

아동의 삶의 질 지수 Child Well-Being Index (유조안 외, 2021. 한국아동의 삶의 질. 세이브더칠드런)



# 01 아이와 양육자는 대부분 도시에 거주

- (2013~2019) 행정구역 기준 도시인구(전체인구) 비율: 90.5~91.1%
  - 유소년인구 93% 이상
  - 30~40대 인구 92% 이상



pISSN 1226-4474, eISSN 2982-6945

The Korean Journal of Human Development, Vol. 30, No. 3, September 2023, 85-100  
<https://doi.org/10.15288/kjhd.2023.30.3.85>

KJHD

## 농산어촌 거주 유자녀 가정의 도시로의 이주: 이동 시점과 예측 요인 탐색을 중심으로\*

Migration of Rural Families with Children to Cities: Exploring Moving Points and Predictors

1차원고접수: 2023.07.05, 수정원고접수: 2023.08.28, 최종게재일: 2023.09.15.

신노리<sup>1</sup> · 최유미<sup>1</sup> · 김경화<sup>2</sup>

<sup>1</sup>충북대학교 아동복지학과, 교수  
 충청대학교 아동복지학과, 박사과정 수료  
<sup>2</sup>충북대학교 아동복지학과, 박사과정 수료

Shin, Nary<sup>1</sup>

Choi, Yumi<sup>1</sup>

Kim, Kyeonghwa<sup>2</sup>

<sup>1,2</sup>Dept. of Child Welfare,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국문초록** 본 연구는 농산어촌에 거주하는 유자녀 가구가 어떤 시점에 도시로 이동하는지와 이러한 이동을 예측할 수 있는 요인을 살펴본다. 연구대상은 한국아동패널 1차 - 12차 자료 중 1차년도에 읍 또는 면에 살고 있는 265가구를, 생존분석 방법을 분석에 사용하였다. 그 결과 읍·면 지역에 거주하는 유자녀 가구 265가구 중 27가구를 제외한 238가구(89.7%)가 도시로 이동했으며, 이주율이 높았던 시기는 재이주행이던 1차와 초등학교 입학 전 두 시점에 해당 나타났다. 도시 이동 시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부모의 연령, 아버지의 직업 변동 및 가구의 소득 수준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의 성별, 순위, 형제 유무, 사회적 지원은 이동 확률을 설명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결과, 유자녀 가구 가입·면 지역에 계속 거주하기 위해서는 육아 및 교육 인프라 개선과 함께 양질의 일자리 확보를 위한 정책이 확대될 필요를 제시하며, 우후 지내를 초·중등에 필요한 요구를 파악하여 지원스케일의 가속화를 꾀할 수 있는 정책 수립이 선행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주요어** 농산어촌 유자녀 가정, 도시 이주, 생존분석

**Abstract** This study aims to investigate the time at which households with children in rural areas move to cities and the factors that can predict this migration. The first to twelfth wave data of the Panel Study on Korean Children (PSKC) were analyzed using survival analysis for this study. As a result, 233 households (89.2%) of the 265 households with children residing in a rural area moved to the city, and the period when the migration rate was high at the time when the child was one year old and six years old, just before entering elementary school. Predictors influencing the initial timing of migration to cities, parental age, father's job changes, and household income level were found to be significant. On the other hand, the child's gender, older siblings, and social support did not explain the probability of moving. These results show that substantial policies to secure quality jobs along with the improvement of childcare and educational infrastructure should be established for households with children to continue to reside in a rural area and to prevent the crisis of extinction due to depopulation.

**Keywords** rural families with children, move to cities, time survival

한국아동패널(1차년도) 아동 2,150명의 가구

한국아동패널(12차년도) 아동 1,412명 가구 추출

1,412명 가구 중 1차년도 당시 가구의 소재지가 행정구역상 읍 또는 면에 해당하는 아동 507명 가구추출

507가구 중 1차년도부터 12차년도까지 누락없이 조사에 참여한 아동 421명의 가구 추출

421명 가구 중 부모와 가구 특성에 누락없이 응답한 아동 265명의 가구 최종 선정

## 01 생존 분석 결과

- 만 1세, 초등학교 입학전인 만6세 생존률 급감
  - 12차(2019, 11세)에는 265명 중 2가구 제외 모두 이동
- 유자녀 가구의 학령기 이전 도시 이동: 출산 직후, 초등학교 입학 전

표 3. 읍·면 거주 유자녀 가구의 생존표 분석 결과 (N = 265)

조사 차수	연도 (자녀연령)	읍·면 소재 유자녀 가구			생존합수
		구간시작 시점 생존표본 수	구간별 이탈자수	구간이탈률	
1	2008( 0세)	265	0	0.00	1.00
2	2009( 1세)	265	84	0.32	0.68
3	2010( 2세)	181	28	0.11	0.58
4	2011( 3세)	153	12	0.05	0.53
5	2012( 4세)	141	11	0.04	0.49
6	2013( 5세)	130	6	0.02	0.47
7	2014( 6세)	124	117	0.44	0.03
8	2015( 7세)	7	2	0.01	0.02
9	2016( 8세)	5	3	0.01	0.01
10	2017( 9세)	2	0	0.00	0.01
11	2018(10세)	2	0	0.00	0.01
12	2019(11세)	2	0	0.00	0.01

농산어촌을 떠나게 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



어린 자녀에 대한 돌봄 및 양육 요구와 교육 여건

7

## 01 저출생은 교육·보육 필수 인프라 급감 초래 (이재희, 2023)

- 영아: 임계거리 6km기준 전체 3,513곳 중 접근성 점수 0인 지역 166곳(4.7%)
  - Hot spot: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광역시, 경기부천시, 고양시, 의왕, 파주시, 김포시, 강원 원주시, 충북제천시 등
  - Cold spot: 강화도, 웅진, 강원 홍천, 양양, 충북 괴산, 청양, 공주, 경북 군위, 김천, 전북 진안, 임실, 전남 영광, 장흥
- 유아: 영아 기관에 비해 읍면지역에 과공급, 일부 대도시는 정원보다 유아수가 많아 이용에 어려움. 이유: 어린이집과 유치원 포함, 읍면지역 병설유치원 정원 미달
  - Hot spot: 강원 홍천, 양양, 경북 울진, 영덕, 청송, 포항, 안동, 의성, 경남 합천, 거창, 전남 의강진, 장흥, 보성
  - Cold spot: 대도시권 서울, 부산, 대구, 광주
- 향후 5년간 어린이집·유치원 기관 수 추이 예상 (저위추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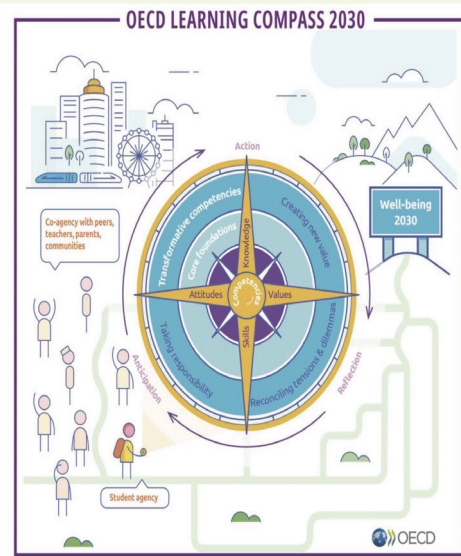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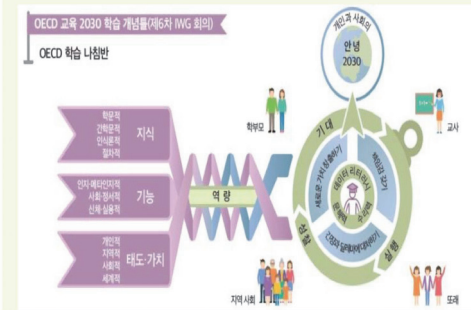
항목	2022	2024	2025	2026	2027	2028
기관수	39,485	34,039	31,463	29,339	27,931	27,069
2022년대비감소수		-5,446	-8,032	-10,146	-11,554	-12,416
2022년대비 감소율		-13.8	-20.3	-25.7	-29.3	-31.4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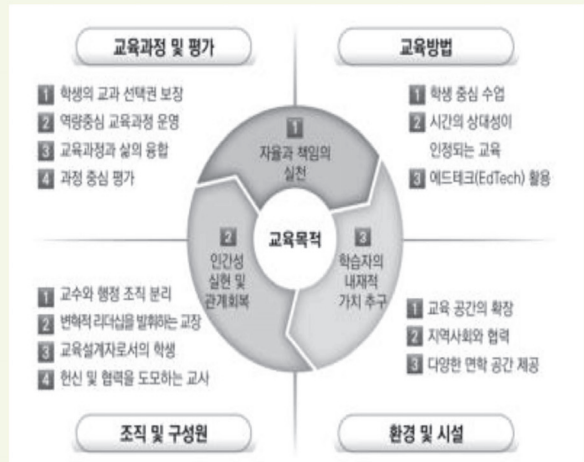
# 01 교육에서 지역사회의 중요성 강조

- OECD 교육 2030 프로젝트에서 미래지향적인역량교육을 위한 학생 행위주체성(student agency)과 협력적 행위주체성(co-agency) 제시

## 교사, 부모 외에도 "지역사회"의 역할 중요



# 01 미래교육의 실천 과제





## 01 미래교육의 실천 과제

- 교육환경 및 시설 (황은희 외, 2019)

미래교육 실천 과제	과제 실행 방안	인적 물적 여건 확보 방안
교육 공간의 확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근 학교와 교육 공간 공유</li> <li>• 지역의 공공 교육기관이나 민간 교육기관을 교육 공간으로 활용</li> <li>• 학교 인근 대학을 교육공간으로 활용</li> <li>• 온라인 웹 사이트를 교육공간으로 활용</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 운영 시 업무 증가로 인한 추가 인력 확보</li> </ul>
지역사회와 협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마을교육공동체를 통한 통합적 교육생태계 구축</li> <li>• 학교의 교육활동 가운데 일부를 지역사회가 담당</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마을교육공동체에 예산을 직접 배분(교육청과 지자체 분담)하여 교육프로그램 운영하도록</li> </ul>
다양한 면학 공간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교육 공간 마련</li> <li>• 공간 시간에 활용할 수 있는 공간 마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축전문가와 교육 전문가 협력으로 추진</li> <li>• 장기적으로는 학교시설 면적 기준 변경</li> </ul>

11

## 01 2022 초 중등 개정 교육과정 인간상

###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 - 인간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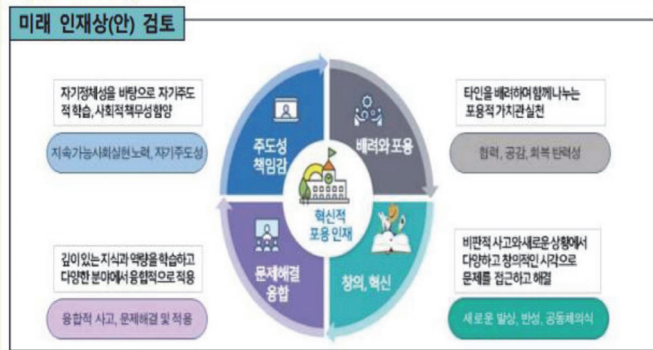
- 가. 전인적 성장을 바탕으로 자아정체성을 확립하고 자신의 진로와 삶을 스스로 개척하는 자기주도적인 사람
- 나. 폭넓은 기초 능력을 바탕으로 진취적 발상과 도전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창의적인 사람
- 다. 문화적 소양과 다원적 가치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인류 문화를 향유하고 발전시키는 교양 있는 사람
- 라. 공동체 의식을 바탕으로 다양성을 이해하고 서로 존중하며 세계와 소통하는 민주시민으로서 배려와 나눔, 협력을 실천하는 더불어 사는 사람

12

## 01 2019 개정 누리과정 인간상

### 누리과정 총론 - 인간상

- 가. 건강한 사람
- 가. 자주적인 사람
- 나. 창의적인 사람
- 다. 감성이 있는 사람
- 라. 더불어 사는 사람



교육부(2021. 4.) 국민과 함께하는 미래형 교육과정 추진 계획(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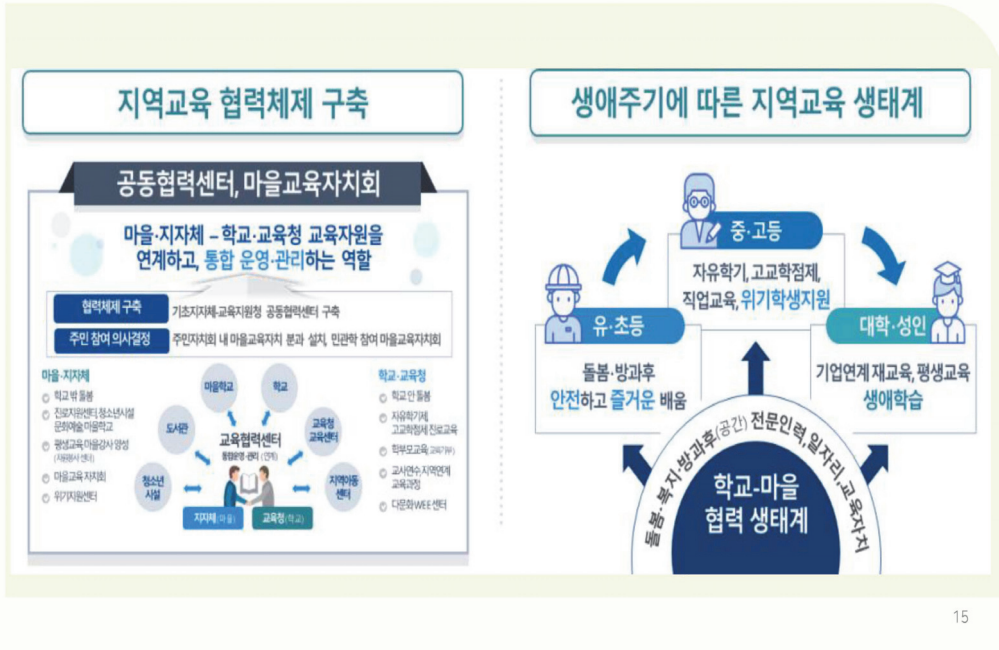
13

## 02 지역기반 유아교육·보육 협력의 현재



14

## 02 교육청-지자체 협력 사업: 미래교육지구



## 02 교육청-지자체 협력 사업: 미래교육지구

교육부

보도 자료

다시 돌아와 대한민국 함께 잘사는 주민의 나라

보도 일시	(인터넷) 2022. 12. 6.(화) 12:00 (지면) 2022. 12. 7.(수) 3:00	배포 일시	2022. 12. 6.(화) 08:30
담당 부서	학교혁신정책관 학교정책과	책임자	과장 강전훈 (044-203-6506)
		담당자	교육연구관 박남정 (044-203-6209) 교육연구사 노한나 (044-203-6455)

교육부, 2023년 미래교육지구 33개 선정

- 교육청과 지자체의 협력으로 지역의 교육력 향상 -

- 주요 내용
- 교육청-지자체가 공동 기획·추진하는 2023년 미래교육지구 33개 선정
  - 일반교 역량강화 등 2023년 중점과제 중심으로 공모, 지구별 1억 원 지원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공모"를 통해 14개 시도의 총 33개 지역을 2023년 미래교육지구로 선정하였다.
- \* 시도교육청-교육지원청-기초지자체가 공동으로 공모계획서 작성 및 제출

- 2020년 12개 지역 선정
- 2023년 33개 지역 선정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남	경북	경남
선정 지역	구로서대문 금정동구립 사상사하영도 영도진구	남구서구	계양연수	광산	중구	세종	고양시흥안양오산화성	춘천	제천주	논산진주	강진구래곡성순천영암	의성	고성	



## 02 미래교육지구 추진개요(2024 미래교육지구 운영 매뉴얼, 경남교육청)

- 미래교육지구란, 미래를 지향하는 지역 교육공동체를 구축하기 위해  
\*\* 교육청과 기초지방자치단체가 협약으로 지정한 지역

### • 추진배경

- 행복교육지구의 양적 성장을 기반으로 질적 성장 제고
- \*\* 미래교육의 방향과 가치 반영으로 학생의 미래 역량 함양
- 2022 개정 교육과정 구현을 위한 학교 교육과정 및 학생 성장 지원 강화
- 지역 교육자원과 연계한 다양한 교육활동 확대 요구 반영

### • 추진목적

- 학교와 지역의 교육협력에 기반한 학생 성장 지원체계 구축 지원
- 삶과 배움을 이어주는 마을 연계 교육과정을 통한 학생 미래역량 제고
- 지역의 다양한 교육자원 연계 교육활동을 통한 교육격차 해소

17

## 02 미래교육지구 추진개요(2024 미래교육지구 운영 매뉴얼, 경남교육청)

### • 마을강사 선정 및 운영

- 선정위원회 구성 및 선정 절차
- 마을 강사 기초/심화 연수 운영

활동 분야	세부 활동 영역(예시)
예술	연극·뮤지컬, 무용, 미술, 각종 공예 등
문화	요리·제빵, 문학, 토론 등
마을	마을 탐방, 마을 역사, 마을 생태, 마을 문제해결 프로젝트 등
미디어	영화 제작, 브이로그, 영상편집, 출판 등
놀이	전래놀이, 공동체놀이, 모드게임 등

기준	내용	검증 방법
전문성	• 해당 분야 자격증(학위)을 보유하고 있는가?	자격증(학위) 사본
	• 해당 분야 실무 경험이 있는가?	활동 확인서 (해당기관에서 발급)
계획의 타당성	• 수업 내용이 학생 수준에 적합한가?	수업계획서
참여의 적극성	• 미래교육지구 사업에 대해 이해하고 있는가?	질의응답

※구체적인 심사기준은 선정위원회에서 정한다.

### • 마을배움터 운영

- 학교형과 지역형으로 구분. 프로그램 특징에 따라 돌봄형, 체험형(예술, 환경, 체육, 놀이, 전통문화 등)으로 운영

### • 행복 마을 학교

- 학교와 지역의 유휴공간 활용해 학교-마을-지역사회가 함께 배우고 성장하도록 지원

18

## 02 교육청-지자체 협력 사업: 교육발전특구

□ **중점과제** ① 교육의 힘으로 지역을 살리는 **교육발전특구** 전국 도입 **강화**

- 과감한 중앙정부의 권한 이양으로 지역 인재양성 및 정주기반을 지역 특성에 맞게 조성하는 교육발전특구 도입(23.12월-)
  - (상향식 전략수립) 지자체, 교육청, 대학 등 지역 내 기관들이 협력하여 지역 실정에 맞는 교육발전 전략을 자율적으로 수립
  - (과감한 지원) 특별교부금 등을 활용하여 재정을 지원하고 지역 교육 발전전략을 실행하기 위해 필요한 규제 특례를 제공
- 교육발전특구를 통해 지역 중심 교육개혁 선도모델이 만들어지고 확산되도록 함으로써 교육개혁 과제들의 현장 착근 지원
  - (자율적 학교모델 구현) 초·중등 통합운영학교, 자율형 공립고, 협약형 특성화고 등 지역이 구상한 자율적 학교발전모델 구현 적극 지원
  - (우수인재 지역유치) △지역인재전형(대학) △IB(교육청) △행·재정 지원(지자체) 등 지역인재 유치를 위한 제도의 자율적 형성 지원

〈 교육발전특구를 중심으로 한 연계 모형(예시) 〉



- 시범사업을 먼저 추진(24-)하고 시범사업 운영 과정에서 지역이 요구하는 규제 특례들을 발굴하여 「교육발전특구법안」 마련(24.상)
- \* 시범지역 1차 지정(23.12월~24.3월), 시범지역 2차 지정 (24.5월~24.7월)

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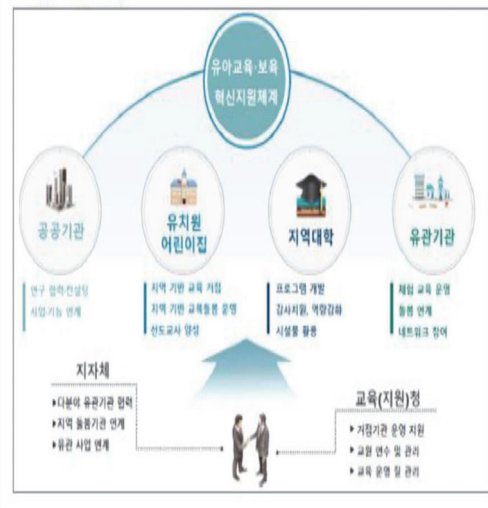
## 02 교육청-지자체 협력 사업: 지역기반형 유아교육보육 혁신지원사업

□ 추진 방향

<b>목표</b>	유아의 전인적 발달을 지원하고 지역 발전의 선순환 구축
<b>추진 방향</b>	교육청-지자체-대학 등 지역 기반 협력체계 구축 지역 기반형 유아교육보육 혁신 실현 및 지역 공교육 강화

<b>전략 과제</b>	<b>협력 (Partnership)</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육청-지자체-대학 간 지역 교육력 제고 비전 공유</li> <li>• 지원센터·위원회 등 다양한 지역 주체 간 협력체계 마련</li> </ul>
	<b>주체 (Ownership)</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 기반형 교육과정 및 방과후 과정 등 운영</li> <li>• 지역대학 및 유관기관 협력을 통한 공교육 강화</li> </ul>
	<b>역량제고 (Capacity Building)</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 유아교육·보육을 통합적으로 발전</li> <li>• 지식공유 활성화 등 자생적 운영 기반 마련</li> </ul>
<b>기반</b>	교육청-지자체-대학 협력 기반 「지역 기반형 유아교육·보육 혁신지원사업」

□ 사업 개요도



20

# 03

## 지역 기반 영유아 교육력 제고를 위한 미래 과제



21

### 03 과제 1: 교육과 지역의 협력



#### '우리 마을'의 범위

- 1순위: 살고 있는 동(54.9%)
- 2순위: 살고 있는 단지(18.3%)
- 3순위: 걸어서 30분 이내(18.1%)

권미경 외(2019: 265) 415명 조사 결과

22

1

### 03 유아와 함께 하는 마을교육공동체 실천 결과

- 유아들은 마을의 '공간'에 먼저 주목한 후, 이에 대한 관심을 점차 마을 '사람'으로 확대
  - 마을이나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하는 공동체는 각 지자체의 특수한 거버넌스와 인프라를 통해 구성되고 관리될 필요가 있으며, 이와 같은 협의체를 유아 포함 모든 지역 주민이 쉽게 경험할 수 있도록 일반화하기 위한 방안 모색이 필요
- 사람과 관계를 맺고 그 관계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소통이 필요하며 긍정적인 소통을 이어 가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이 필요함을 자연스럽게 체득
  - '쓰레기가 없으면 좋겠다'는 나(유아)만의 생각이 '우리 마을을 깨끗하게 만들어 가고 싶어'라는 행위주체성(student agency)에 변화를 가져옴

이성희, 한아름(2023). 유아와 함께하는 마을교육공동체의 실천을 위한 협력적 실행연구. 영유아교육: 이론과 실천, 8(3), 47-80.

### 03 유아와 함께 하는 마을교육공동체 실천과정

유아에게 마을이란? 옛날옛날 어느 마을에~~



마을 길 산책하기를 통해  
공용 공간에 관심 가지기

다 름: 선생님. 근데 여기는 쉬라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왜 있는 거예요?  
하 경: 바람이 들어오라고 뚫어놓은 건가? 시원하게 있으라고?  
인 규: 맞아. 바람이 있어야 시원하게 쉬고 가지.



마을 사람들과 소통하며,  
마을의 문제(쓰레기)에  
관심을 갖게 되다



화가와 활동 실천 계획  
노인회 구성원과 소통  
꽃집 주인과 꽃장식 함께 제작



마을교육공동체 초대하기  
마을의 사람과 연결되기

이성희, 한아름(2023). 유아와 함께하는 마을교육공동체의 실천을 위한 협력적 실행연구. 영유아교육: 이론과 실천, 8(3), 47-8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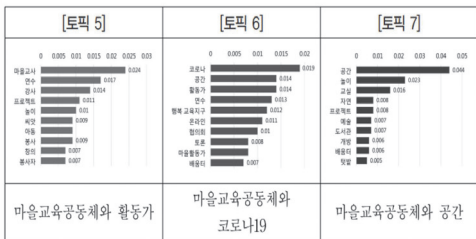
# 03 마을교육공동체

정은지, 김태종(2021). 토픽 모델링을 활용한 '마을교육공동체' 뉴스 빅데이터 분석. 평생학습사회, 17(4), 199-2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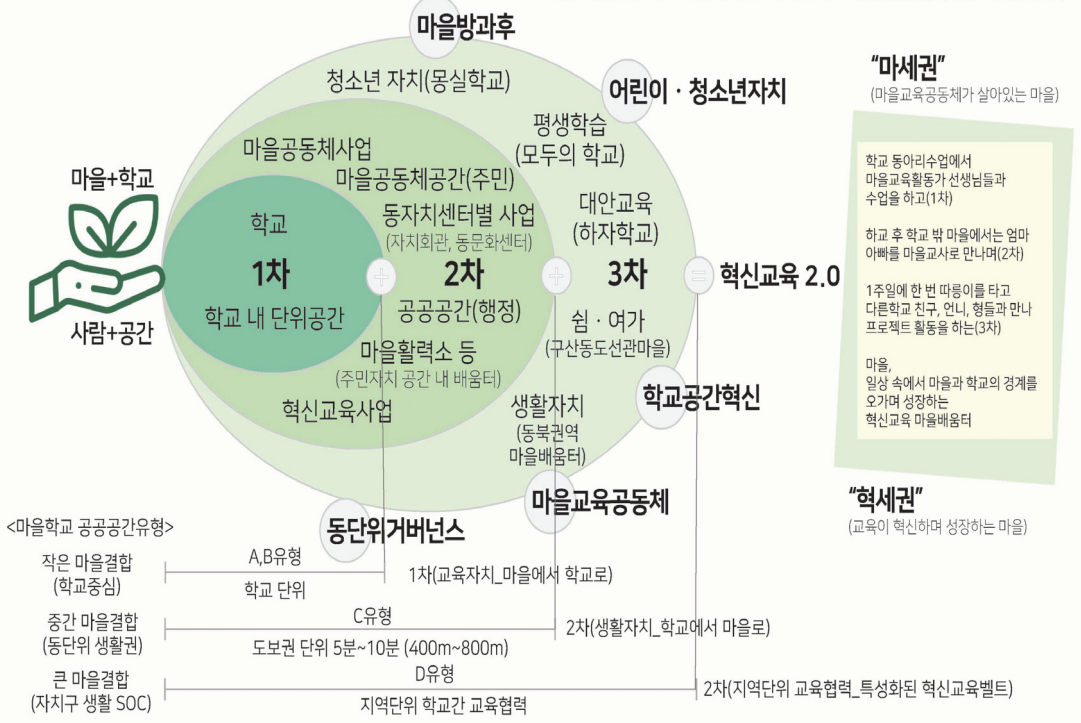


마을이 아이들을 함께 키우는 것  
 마을이 아이들의 배움터가 되는 것  
 아이들을 마을의 주인으로 키우는 것

-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문화와 역사를 함께하며 길러진 그 지역의 정체성을 바탕으로 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자원을 공유하고 교육의 주체와 객체가 되어 공동체와 사회의 교육환경을 만들어가는 공동체” (백은주, 2022)
- 마을교육공동체가 학교와 마을의 협력이나 파트너십을 넘어 마을 자체가 하나의 교육생태계의 관점으로 발전(김용린, 2015)



고인룡 외(2020). 학교-마을 거버넌스에 의한 학교 마을결합형 공간 운영 개선방안 연구.





## 03 과제 2: 협력 거버넌스 구축과 지속적 연계

- 교육청-지자체-유관기관-지역대학의 업무협약 체결에서 시작
  - 서로 다른 업무 및 보고 체계 보완
  - 사업 진행을 위한 인력 및 예산 지원 지속성
- 각 주체가 담당하는 사업목적을 공유하여, 중복사업과 연계가능사업, 신규발굴사업 도출
-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 온 마을이 필요하다”라는 지향을 기초로, 교육 주체이며 행위자인 영유아의 관점에서 교육, 돌봄, 발달지원의 촘촘한 설계 협의
- 영유아 교원의 복지와 전문성 발달을 위한 다각도 지원을 통해 교육보육기관의 교육력 제고
- 지역 내 인적, 물적 자원의 협력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력풀 관리

27

## 참고문헌

- 강미라, 원효현(2024). 마을교육공동체 속성에 관한 질적 메타분석. 교육공동체 연구와 실천, 6(1), 211-234.
- 강은진, 권미경, 김보미, 황명화, 김희교(2020). 초저출산 사회 극복을 위한 육아친화마을 조성 방안 연구(II): KIC CE 육아친화마을 조성지표 지역별 맞춤형 시범 진단 및 적용. 육아정책연구소.
- 권미경 외(2019). 초저출산 사회 극복을 위한 육아친화마을 조성 방안 연구(I). 육아정책연구소
- 김용련(2015). 지역사회 기반 교육공동체 구축 원리에 대한 탐색적 접근. 교육행정학연구. 33(2), 259-287.
- 신나리, 최유미, 김경화(2023). 농산어촌 거주 유자녀 가정의 도시로의 이주: 이동 시점과 예측 요인 탐색을 중심으로. 인간발달연구, 30(3), 85-100.
- 유조안 외 (2021). 한국아동의 삶의 질. 세이브더칠드런
- 이성희, 한아름(2023). 유아와 함께하는 마을교육공동체의 실천을 위한 협력적 실행연구. 영유아교육: 이론과 실천, 8(3), 47-80.
- 이재희(2023). 저출생시대 어린이집·유치원 인프라 공급진단. 육아정책포럼(겨울호), pp.36-48.

28

주제발표 2

# 늘봄학교 정책동향과 향후과제

이성희

연구위원 (한국교육개발원)





# 늘봄학교 정책동향과 향후과제

이성희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  
늘봄중앙지원센터 소장)

본 발표는 이성희(2024). 늘봄학교 정책 현황과 과제. 유아정책포럼 제80호(여름)의 글  
을 포럼 형식에 맞게 수정보완한 것이다.



| KOREAN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

## CONTENTS

- 01 늘봄학교 정책 동향과 현황
- 02 늘봄학교 안착을 위한 향후 과제
- 03 나가며

# 1

## 늘봄학교 정책 동향과 현황



### 1 늘봄학교 정책 동향과 현황

#### 2024년 2학기 전국 모든 초등학교에서 늘봄학교 전면시행

국정과제84. “국가 교육책임 강화로 교육격차 해소”

- 초등학생의 방과후 교육과 돌봄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정책

〈표〉 늘봄학교 개념(안), 비전과 목표의 변화(2023~2024)

구분	2023년 <sup>1)</sup>	2024년 <sup>2)</sup>
개념(안)	학교 안팎의 다양한 교육자원을 활용하여 희망하는 초등학생에게 정규수업 전후로 제공하는 양질의 교육·돌봄(Educare) 통합 서비스	늘봄학교는 정규수업 외에 학교와 지역사회의 다양한 교육자원을 연계하여 학생 성장·발달을 위해 제공하는 <b>종합 교육프로그램</b> - 기존의 초등학교 방과후와 돌봄을 통합 개선한 단일체제 * 앞으로 초등학교 방과후와 돌봄은 없어지고 늘봄학교 하나의 체제만 존재
비전	가정·학교·지역사회 협력으로 교육·돌봄 국가책임 강화	세계 최고 수준의 늘봄학교
목표	2025년부터 전국 초등학교에서 늘봄학교 운영, 희망하는 모든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돌봄 서비스 제공	희망하는 학생·학부모 누구나 만족하며 누릴 수 있는 종합 교육프로그램 제공

1) 교육부(2023)

2) 교육부(2024), 이사회(2024) 재인용



# 1 늘봄학교 정책 동향과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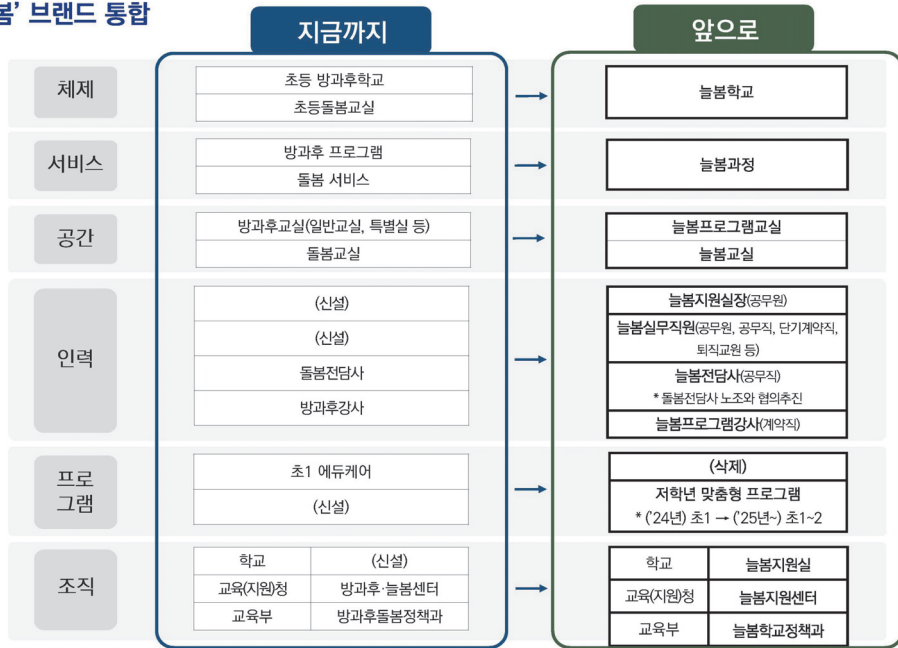
## 늘봄학교 운영 현황

- ◆ 2023년: 459개교(늘봄학교 시범사업/8개 시도교육청)
- ◆ 2024년 3월: 전체 6,175개 초등학교 중 2,838개교(46%)가 늘봄학교 본사업(2024~2026)에 참여
- ◆ 2024년: 초등학생 1학년 대상, 2시간 무료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 ◆ 2025년: 1~2학년 학생으로 대상 확대
- ◆ 2026년에는 모든 초등학생으로 대상 확대

2024년 현재 늘봄학교에 재학 중인 초등학생 1학년은 희망하는 경우 2시간의 무료 맞춤형 프로그램에 참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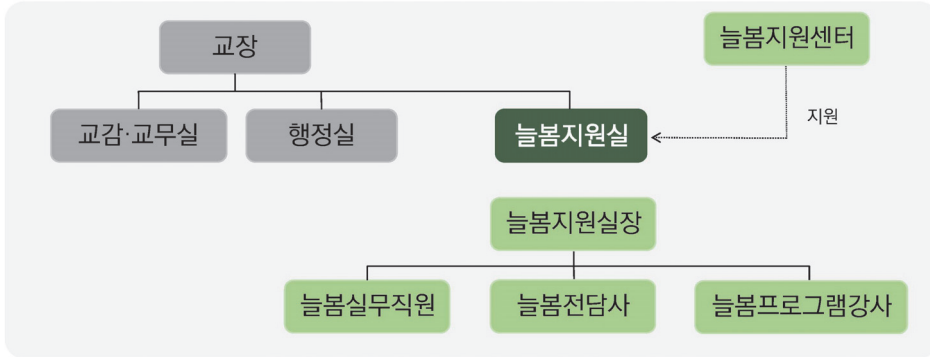
# 1 늘봄학교 정책 동향과 현황

## '늘봄' 브랜드 통합



# 1 늘봄학교 정책 동향과 현황

## 늘봄지원실 운영 기본 모형



- ◆ 늘봄지원실장: 큰 학교 중심으로 지방공무원이 업무 책임 예정, 단계적 추진
- ◆ 늘봄실무직원: 늘봄학교 프로그램 운영 관련 전담 행정인력

교육부(2024)



# 1 늘봄학교 정책 동향과 현황

## 2024~2025년 추진 로드맵

구분	과도기단계		최종완성
	① '24년 1학기	② '24년 2학기	③ '25년
늘봄지원실	설치 추진	1교1실 설치·운영	1교1실 설치·운영
늘봄지원실장	공무원*, 교감 *늘봄지원센터 소속	공무원*, 교감 *늘봄지원센터 소속	지방공무원* (전문직 또는 교육행정직) *큰 학교에 전임발령
늘봄실무직원	늘봄 신규업무	늘봄 신규업무 +기존 방과후·돌봄 업무	늘봄 신규업무 +기존 방과후·돌봄 업무
교사	기존 방과후·돌봄 업무	늘봄실무직원 등에게 방과후·돌봄 업무 이관	

교사의 늘봄학교  
행정업무 부담 해소

늘봄지원실  
전담체제 완성

교육부(2024)





# 1 늘봄학교 정책 동향과 현황

## 늘봄학교 도입으로 달라지는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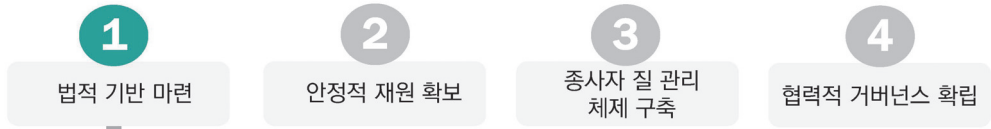
교육부(2024)

	지금까지 (기존의 초등 방과후·돌봄)	앞으로 (늘봄학교)
이용 대상	방과후 참여율 50.3%, 돌봄 참여율 11.5% * '23년 기준, (초1) 방과후 70.8% 돌봄 34.5% (초2) 방과후 66.1% 돌봄 25.9%	희망하는 초등학생 100% * ('24년) 초1학년 100% (25년) 초1~2학년 100% (26년) 초1~6학년 100%
이용 시간	오후 1~5시까지 중심 * 돌봄은 수요에 따라 오후 7시까지	정규수업 전 아침, 정규수업 후 희망시간까지 (최장 오후8시)
비용	프로그램 비용 학생·학부모 부담 * 단, 저소득층 등은 무료수강권 제공	프로그램 비용 무료 * 연중 매일 2시간 이내(2개 프로그램) ('24년) 초1 ('25년~) 초1~2
프로그램	학교 인근의 고차화된 공급처 위주	전문기관, 대학, 기업 등 우수공급처 확대 * 온라인 프로그램 공급플랫폼, 「늘봄허브」 구축·운영('25년~)
운영 공간	학교 내 돌봄교실(돌봄), 일반학급 등(방과후)	학교 안 다양한 공간 (돌봄교실, 특별실, 일반교실 등) + 학교 밖 지역 교육공간 (거점형 늘봄센터, 지역 돌봄기관, 도서관, 공공기관, 대학 등)
운영 방식	교사의 행정업무 부담	교사의 늘봄학교 행정부담 해소 * 학교에 늘봄학교 전담조직인 「늘봄지원실」 설치·운영 * 교육(지원)청에 「늘봄지원센터」 구축

#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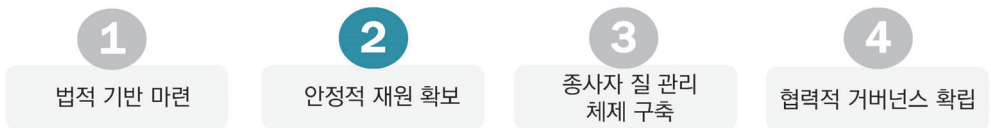
## 늘봄학교 안착을 위한 향후 과제

## 2 늘봄학교 안착을 위한 향후 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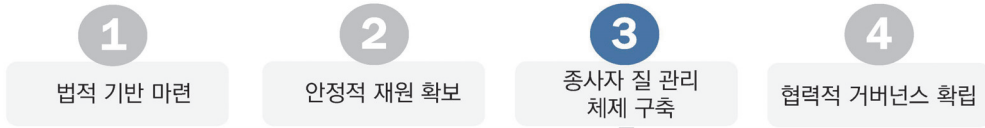
- ◆ 교육부의 늘봄학교(초등돌봄교실, 방과후학교) 사업 외 보건복지부 다함께돌봄센터, 지역아동센터, 학교돌봄터 사업, 여성가족부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사업 등
  - ◆ 초등학생 학부모 → 학교 돌봄 및 교육 선호(초등돌봄 선호기관 학교돌봄 81.4%)
  - ◆ 초등돌봄교실, 방과후학교 통합·개선 및 양질의 방과후 교육프로그램 제공을 위한 늘봄학교 법적 근거 미비
    - 아동복지법: 보건복지부 사업(다함께 돌봄센터, 학교돌봄터, 지역아동센터)
    - 청소년기본법: 여성가족부 사업(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 ➔ 초·중등교육법에 관련 조항을 추가하여 개정
- ➔ 늘봄학교 특별법 마련

## 2 늘봄학교 안착을 위한 향후 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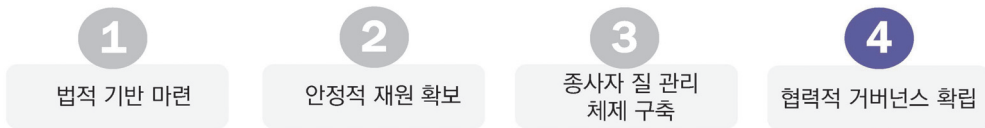
- ◆ 지난 20년간 기존의 초등돌봄교실과 방과후학교는 특별교부금 형태의 단발적 재정 지원 사업 형태로 운영
  - ◆ 법적 근거가 미비함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국민들의 높은 수요가 있었음을 방증
- ➔ 늘봄학교 법적 기반의 마련과 함께 안정적인 재정 지원을 확보 방안 마련 필요
- ➔ 학교, 교육(지원)청 및 늘봄지원센터에 늘봄학교 전담 운영을 위한 인력 총원 반드시 필요
- ➔ 전담인력의 선발과 질 관리 체제 구축에 대한 안정적인 예산 지원이 반드시 수반

## 2 늘봄학교 안착을 위한 향후 과제



- ◆ 눈에 잘 보이지 않지만 정책 성공의 핵심기제인 종사자 질 관리 체제 구축에 집중
- ◆ 종사자의 질이 확보되면 이들이 지역 자원을 연계하고 발굴하여 양질의 교육프로그램을 확보
- ➔ 단위학교의 늘봄지원실과 교육(지원)청의 늘봄지원센터의 업무 표준화와 새로 임명될 늘봄지원실장, 늘봄실무직원 등에 대한 주기적인 교육과 연수
  - 한국교육개발원의 늘봄중앙지원센터 및 전국 183개 늘봄지원센터에서 늘봄학교 전담 지원
  - 거주 지역에 관계없이 동등한 양질의 늘봄 교육프로그램 및 돌봄 관계의 혜택을 위해 시도교육청은 여건에 맞게 늘봄지원센터의 업무를 표준화하여 늘봄학교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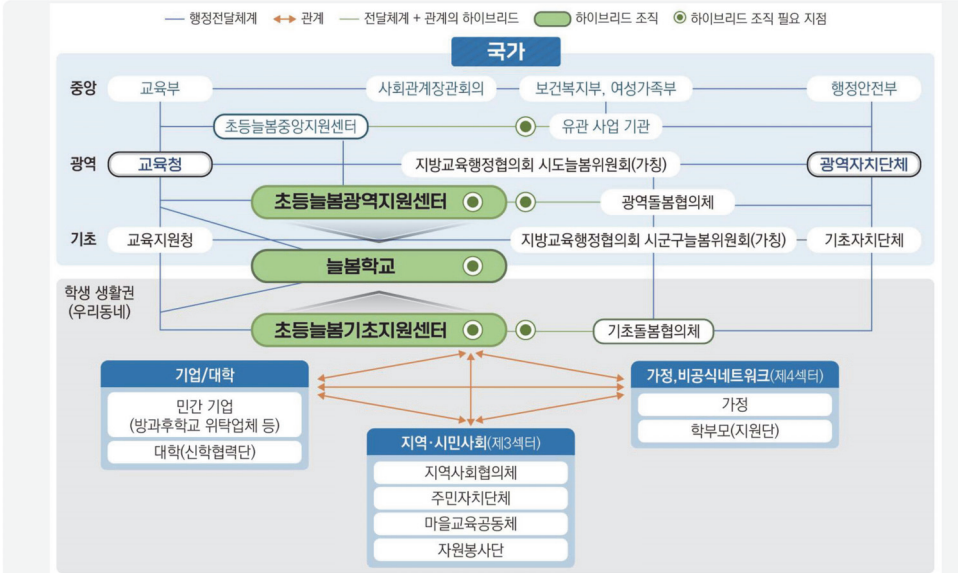
## 2 늘봄학교 안착을 위한 향후 과제



- ◆ 중앙·광역·기초·동네 층위의 다층적인 협력적 거버넌스를 확립
  - 협력적 거버넌스는 국가기관과 같은 공적 기관들이 계약 당사자의 책임과 의무를 분명히 규정한 공식적인 성문 계약에 따라 지배를 받는 계약적 거버넌스(contractual governance)와, 가정, 시민사회, 마을 주체들이 신뢰와 관계규범에 따라 관계를 맺는 관계적 거버넌스(relational governance)
- ➔ 정책 목표인 학생들이 '양질'의 (방과후, 방학중) 교육프로그램과 '신뢰'할 수 있는 돌봄관계를 학교 안'팍'에서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함
- ◆ 늘봄학교는 일하는 학부모 고용·노동정책, 연금정책, 복지정책, 교육정책 등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된 범부처 차원의 사회정책으로 자리매김해야 하고, 가정, 학교, 지역사회와 국가, 우리 모두의 책임

## 2 늘봄학교 안착을 위한 향후 과제

### 늘봄학교 정책 구현을 위한 국가 단위 협력적 거버넌스(이성희 외, 2023)



## 3

### 나가며

✉ amy44cam@gmail.com



## 나가며

**늘봄학교**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희망하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정규수업 외에 학교와 지역사회의 다양한 교육자원을 연계하여 학생 성장·발달을 위해 제공되는 **종합 교육프로그램**

2024년 2학기에 모든 초등학교 늘봄학교 전면 시행

늘봄학교가 내실 있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단위 학교** 차원에서는 초등학교 **방과후와 돌봄을 통합·개선한 단일체제구축이,**

**교육(지원)청 차원**에서는 교육(지원)청 산하 **늘봄지원센터의 늘봄학교 지원업무 역할 강화가,**

**지역 차원**에서는 **어른들의 협력이,**

**국가 차원**에서는 **범부처 차원의 공조가 필요**

## 3 나가며



늘봄학교 정책이  
안착하기 위해서는  
법적 기반의 마련과  
안정적이고 지속적  
재원 확보 필요



늘봄학교 정책  
단발적 사업을 넘어  
제도화 필요



'결국 사람과 관계'가  
정책 성공의  
핵심 메커니즘

## 참고문헌

이성희 외(2023). 전일제 학교 제도화 방안 연구: 초등 늘봄 정책을 중심으로. 한국교육개발원.

이성희(2023). 늘봄학교의 비전과 변화의 모색. 2023년 늘봄학교 시범운영 성과보고회. <https://www.youtube.com/watch?v=mdVWCqtRm9Y>

이성희(2024). 늘봄학교 정책 비전과 개념: 관계재 이론과 현장 의견 수렴을 중심으로. 초등교육연구 37(2), 159-183.

감사합니다.

주제발표 3

---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두툼하고 촘촘한 방과후 지원체계

---

구자연

부연구위원 (육아정책연구소)



## 2024년 제2차 육아정책심포지엄

#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두툼하고 촘촘한 방과후 지원체계

발표일 | 2024. 7. 24.

발표자 | 구자연

2024 육아정책연구소  
제2차 육아정책심포지엄

## CONTENTS

### 〈유치원 방과후 과정〉

- 01 정의 및 정책 변화
- 02 운영 및 이용 현황
- 03 운영 사례 및 개선 요구
- 04 정책 방향 및 추진과제

 육아정책연구소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본 발표 자료는 육아정책연구소 2023년 연구보고서 '유치원 방과후 과정 서비스 질 제고 방안 연구(구자연, 권미경, 윤지연, 장유진, 박건형)'의 내용을 일부 정리한 것으로 구체적인 결과 등은 연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1. 유치원 방과후 과정 법적 정의

### 유치원 방과후 과정 관련 법령 제정 및 개정

구분	조항	내용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시행 1998. 3. 1.] [대통령령 제15664호, 1998. 2. 24., 제정]	제48조 (수업운영 방법 등)	① 유치원은 필요한 경우 반일제·시간연장제 또는 종일제로 운영할 수 있다.
유아교육진흥법 [시행 1999. 3. 1.] [법률 제5567호, 1998. 9. 17., 전부개정]	제6조 (수업과정)	① 유치원은 다음 각호의 수업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1. 반일제: 1일 3시간 이상 5시간 미만의 수업과정 2. 시간연장제: 1일 5시간 이상 8시간 미만의 수업과정 3. 종일제: 1일 8시간 이상 수업과정 ② 보호자는 필요에 따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업과정을 선택할 수 있다.
유아교육법 [시행 2005. 1. 30.] [법률 제7120호, 2004. 1. 29., 제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유아"라 함은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전까지의 어린이를 말한다. 2. "유치원"이란 영아의 교육을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학교를 말한다. 3. "보호자"라 함은 친권자·후견인 그 밖의 자로서 유아를 사실상 보호하는 자를 말한다. 4. "반일제"라 함은 1일 3시간 이상 5시간 미만의 교육과정을 말한다. 5. "시간연장제"라 함은 1일 5시간 이상 8시간 미만의 교육과정을 말한다. 6. "종일제"라 함은 1일 8시간 이상의 교육과정을 말한다.
유아교육법 [시행 2012. 3. 21.] [법률 제11382호, 2012. 3. 21., 일부개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 3. 24., 2012. 3. 21.> 1. "유아"란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전까지의 어린이를 말한다. 2. "유치원"이란 유아의 교육을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학교를 말한다. 3. "보호자"란 친권자·후견인 그 밖의 자로서 유아를 사실상 보호하는 자를 말한다. 4. 삭제 (2012. 3. 21.) 5. 삭제 (2012. 3. 21.) 6. "방과후 과정"이란 제13조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 이후에 이루어지는 그 밖의 교육활동과 돌봄활동을 말한다.

#### 종일제 운영

취업모 자녀를 위한 과정

#### 방과후 과정

유아교육에 대한 학부모의 부담과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교육과 돌봄 기능 강화

## 1-2. 유치원 방과후 과정 정책 변화

### 유아교육발전 기본계획

구분	내용
유아교육 선진화 추진 계획 (2010-20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래지향적 교육과정 운영의 주요 내용으로 종일제 관련 내용 제시</li> <li>· '미래지향적 교육과정 개편'과 '유치원 종일제 운영 내실화', '다양한 심화·특성화활동 프로그램 개발·보급' 도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치원 과정을 기본과정과 종일제로 구분</li> <li>- 종일제 운영 전담교사 확보와 종일제 보조인력(3세대 하모니) 지원 확대</li> <li>- 특성화활동 프로그램 인증제 도입</li> </ul> </li> </ul>
유아교육발전 5개년 계획 (2013-20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책과제로 '교육과정 및 방과후 과정 내실화'를 담고, 그 주요 내용으로 '방과후 과정 운영 내실화'와 '방과후 과정 전담인력 배치'를 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7시부터 22시까지 아침돌봄, 방과후 과정, 저녁돌봄을 연계한 돌봄기능</li> <li>- 방과후 과정 운영 지침 고시</li> <li>- 방과후 과정 운영 시설 개선비용 지원</li> <li>- 방과후 과정 전담 기간제 교원 배치, 방과후 과정 지원인력 규정 마련</li> </ul> </li> </ul>
제2차 유아교육발전 기본계획 (2018-20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책과제로 '교실 혁명을 통한 유아중심의 교육 문화 조성'을 제시</li> <li>· 유아 중심으로 교육패러다임 전환하고 과도한 사교육 문화 개선에 초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방과후 과정의 역할 정립을 제시</li> <li>- 주당 유아 1인의 방과후 프로그램을 3개 내외</li> <li>- 저소득층 가정의 유아 우선 이용 지원</li> <li>- 프로젝트 교육연구학교를 지정하고 다양한 사례 발굴</li> </ul> </li> </ul>
제3차 유아교육발전 기본계획 (2023-202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책과제로 '교육과정과 방과후 과정의 내실화'를 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희망 유아에게 방과후 과정 지원(추가 소요 예산은 지방교육재정 부담)</li> <li>- 교육과정과 방과후 과정의 통합적 연계 운영 지원</li> <li>- 다양한 방과후 과정 프로그램 개발</li> <li>- 유치원 입학관리시스템을 통해 입학</li> <li>- 돌봄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 프로그램 개발 및 연수 추진</li> <li>- 방과후 과정 운영지원 가이드라인 마련</li> </ul> </li> </ul>

#### 유아 중심 교육패러다임 전환

저소득층 가정 유아 우선 지원

#### 교육과정과 방과후 과정 내실화

희망 유아 지원  
교육과정과 방과후 과정의 통합적 연계 운영 지원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돌봄 역량 강화 연수 프로그램

## 1-2. 유치원 방과후 과정 정책 변화

- **국정과제 84-1:** 유치원 방과후 과정(돌봄) 운영 확대
- **제3차 유아교육 발전 기본계획(23~27):** 방과후 과정 확대 및 내실화
-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 발표(24.6.19.,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 주요 발표 과제

##### ■ (저출생 대책)

- ① 유보통합: 기본운영시간(8h, 교육+연장)+돌봄(4h, 아침+저녁) 보장
- ② 유치원-돌봄 연계: 인구감소지역 소규모 초등 병설+돌봄 연계(25)
- ③ 유아동 놀이영어: 아동발달 과정에 맞는 놀이식 프로그램 개발·확산, 희망 대학생 보조강사 활용 추진 등

- **유보통합 실행계획 발표(24.6.27., 유보통합추진단)**

#### 주요 발표 과제

- (유보통합 실행계획) 희망하는 영유아 누구나 1일 12시간 이용할 수 있도록 기본운영시간(8h)과 맞춤형 돌봄(4h) 체계를 마련하여 교육·돌봄 공백 해소
  - ① 기본 운영시간: 교육과정(3-4h)+연장과정(4-5h), 놀이식 연장과정 프로그램 제공
  - ② 맞춤형 돌봄: 아침돌봄(11h30~2h)+저녁돌봄(2h-2h30)
  - ③ 방학 중 운영: 공립 방학 중 운영학교 확대, 방학 중 추가인력 배치
  - ④ 휴일 돌봄: 토요일 및 휴일 거점기관 운영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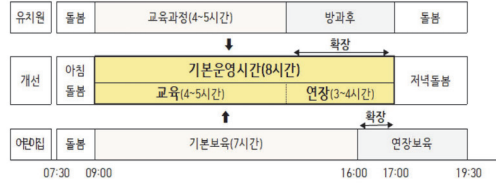
## 1-2. 유치원 방과후 과정 정책 변화

유치원 방과후 과정 평일 운영 형태



유보통합 실행 계획(2024. 6. 27.)

기본8 + 추가4 이용 시간 보장



- 희망하는 영유아 누구나 1일 12시간 이용할 수 있도록 기본운영시간(8h)과 맞춤형 돌봄(4h) 체계를 마련하여 교육·돌봄 공백 해소
- 기본운영시간은 교육과정(4~5h)과 연장과정(3~4h)으로 구성하고, 연장과정(외부강사 활용 가능)도 내실 있게 운영

# 02

## 유치원 방과후 과정 운영 및 이용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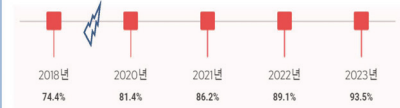
## 2. 유치원 방과후 과정 운영 및 이용 현황

유치원 방과후 과정 운영 및 이용 현황(2023년 4월 1일 기준)

단위: 개소, 명, %

구분	방과후 과정 운영			방과후 과정 이용		
	전체 유치원 수	방과후 과정 운영 유치원 수	방과후 과정 운영률(%)	전체 유아 수	방과후 과정 참여 유아 수	방과후 과정 참여율(%)
전체	7,953	7,944	99.9	519,843	486,166	93.5
서울	748	745	99.6	62,654	53,441	85.3
부산	363	363	100.0	34,219	32,950	96.3
대구	302	302	100.0	30,481	30,156	98.9
인천	384	382	99.5	34,608	32,474	93.8
광주	259	259	100.0	19,882	19,859	99.9
대전	242	242	100.0	18,758	18,407	98.1
울산	174	174	100.0	13,510	13,501	99.9
세종	64	64	100.0	6,250	6,094	97.5
경기	2,012	2,008	99.8	143,337	125,063	87.3
강원	344	344	100.0	12,657	12,645	99.9
충북	302	302	100.0	14,224	14,101	99.1
충남	471	471	100.0	21,966	21,427	97.5
전북	450	450	100.0	17,365	17,312	99.7
전남	476	476	100.0	15,477	15,477	100.0
경북	616	616	100.0	29,103	29,089	100.0
경남	628	628	100.0	39,718	38,788	97.7
제주	118	118	100.0	5,634	5,382	95.5

### 방과후 과정 참여율



최근 5년간 19.1%p 상승  
지속해서 상승하는 추세

9

# 03

## 유치원 방과후 과정 운영 사례 및 개선 요구

### 3-1. 유치원 방과후 과정 운영 사례

#### 교육과정 연계 방과후 과정 운영

시도	유형	유치원명	운영 현황	운영 특색
강원	병설	○○초등학교 병설유치원	▶ 6학급 80명/ (방과후) 6학급 80명 (운영시간) 07:30~19:00 ▶ (방과후 인력) 전담교사 1명, 공무원 5명, 기타 1명	교육과정 연계 요일별 특색활동(특성화 미운영) -교육과정-방과후 과정 연계하여 요일별 놀이배움터의 날 운영 ※ 월-놀이꾸러미, 화-기후변화, 수-디지털기반 놀이한걸, 목-언어놀이, 금-체육이랑 놀자
전남	병설	○○초등학교 병설유치원	▶ 1학급 7명/ (방과후) 1학급 7명 (운영시간) 09:00~19:00 ▶ (방과후 인력) 시기간제 1명	소규모 유치원 간 공동교육과정 운영 -적은유치원 협력네트워크(공동교육과정 운영) -교육과정과 방과후 교사 간 수시 협력체계 구축
세종	단설	○○유치원	▶ 9학급 137명/ (방과후) 9학급 135명 (운영시간) 09:00~19:00 ▶ (방과후 인력) 시기간제 9명	마을연계 방과후 과정 운영 -지역 인적자원 활용한 마을연계 방과후 운영 ※ 어르신과 함께 하는 생대활동, 클래식 여행, 텃밭이 등
경기	단설	○○유치원	▶ 14학급 189명/ (방과후) 7학급 120명 ※ 특수중일반1 포함 (운영시간) 08:00~19:00 ▶ (방과후 인력) 시기간제 6명	방과후 담당자 전문직학습공동체 운영 활성화 -교육과정 연계 방과후 과정 운영을 위해 방과후 기간제교사 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직학습공동체 운영
경남	단설	○○유치원	▶ 11학급 164명/ (방과후) 11학급 164명 (운영시간) 07:30~19:30 ▶ (방과후 인력) 전담교사 5명, 전일제기간제 2명, 시기간제 2명, 공무원 2명	교육과정-방과후 과정 교원 동아리 운영 -지속가능발전 교육 현장지원 자료를 활용하여 교육과정과 연계한 환경 놀이 -교육과정-방과후 과정 간 교원연수 및 온라인 '놀이동아리' 구성 운영
충남	사립	○○유치원	▶ 6학급 105명/ (방과후) 3학급 58명 (운영 시간) 09:00~19:00 ▶ (방과후 인력) 전담교사 2명, 시기간제 1명	유아 놀이 중심 방과후 과정 -특성화프로그램 미운영 -놀이와 숨이 있는 방과후 과정 운영 -주변 대학의 물적·인적자원 활용

11

### 3-1. 유치원 방과후 과정 운영 사례

#### 지역사회 연계 방과후 과정 운영

시도	유형	유치원명	운영 현황	운영 특색
경기	병설	○○초등학교 병설유치원	① 학급수 : 3학급 ② 유아수 : 36명 ③ 방과후 학급 수 : 2학급 ④ 방과후 참여 유아수 : 31명	유치원 간 방학 중 방과후 과정 연계 중심유치원(3학급 이상 병설)과 협력유치원(1학급 병설)연계하여 방학중 방과후 과정 운영
경북	병설	○○초등학교 병설유치원	① 학급수 : 1학급 ② 유아수 : 5명 ③ 방과후 학급 수 : 1학급 ④ 방과후 참여 유아수 : 5명(초4명)	초등 능력학교와 통합 운영 농산촌 복지학교로 전교생 9명 유·초 교사 소통협력을 통한 유·초이음형 능력학교 운영(농번기 집중 저년·주말돌봄 등)
충남	병설	○○초등학교 병설유치원	① 학급수 : 1학급 ② 유아수 : 3명 ③ 방과후 학급 수 : 1학급 ④ 방과후 참여 유아수 : 3명	초등학교와 연계한 토요일 운영 휴원위에서 23년 병설 운영 확대 방안의 일환으로 토요일을 운영(유아 3명 모두 참여) 초등과 연계하여 토요일프로그램요리, 체육 등 운영 중, 초등학교와 함께 운번제 근무
대전	사립	○○유치원	① 학급수 : 6학급 ② 유아수 : 109명 ③ 방과후 학급 수 : 6학급 ④ 방과후 참여 유아수 : 110명	유치원-어린이집 간 마을연계 운영 아파트 내 위치한 유치원으로 인근 어린이집(3개원)과 연계하여 돌봄 통합 운영 천재 연계 참여 유아에게는 형제관계로 어린이집 하원 후 유치원에서 함께 저녁돌봄 이용 ※ 교육청(2021년) 돌봄 운영 지원금 35백만원 지원 지역 마을학교 연계 운영
충남	병설	○○초등학교 병설유치원	① 학급수 : 1학급 ② 유아수 : 5명 ③ 방과후 학급 수 : 1학급 ④ 방과후 참여 유아수 : 5명	지역아동센터에서 지역 돌봄 이용 90%이상의 가구가 농가에 종사하는 지역으로 돌봄공백 해소를 위해 공백년 등 운영 시점 現 마을공동체조직 조차되어 지역 마을학교 운영 마을학교 연계는 초등학생 대상이나 학부모 요청으로 현재지매인 유치원생도 방과후 과정 이후 시간과 방학 중에 돌봄 참여
전북	병설	○○초등학교 병설유치원	① 학급수 : 1학급 ② 유아수 : 8명 ③ 방과후 학급 수 : 1학급 ④ 방과후 참여 유아수 : 8명 ⑤ 지역연계 참여 유아수 : 7명	지역아동센터에서 지역 돌봄 이용 농어촌 지역에 위치한 1학급 병설유치원으로 학부모가 센터에 직접 요청하여 22년부터 이용 방과후 과정 이후(16:30) 통학차량 이용하여 지역아동센터로 이동, 보호자 퇴근 후 동반 귀가

- 학부모·유아의 돌봄 수요 보장을 위해 지역사회 내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유아교육·초등학교·보육기관 등 연계 운영 활성화
- (유치원 간 연계) 유아 돌봄 공백 및 교원 업무 부담 최소화를 위해 공립·단설·병설 간 또는 병설 간 방학 중 통합 돌봄 운영
- (초등학교와의 연계) 소규모 유치원의 경우, 초등 능력학교와 협력하여 방과후 과정을 운영하고, 인력·공간·프로그램 등 공유
- (지역 보육기관 연계) 지역별 여건에 따라 교육청과 지자체 간 협의 하, 방과후 과정 이후 지역돌봄기관(돌봄센터, 어린이집 등)과 연계하여 돌봄 이용

12

### 3-2. 유치원 방과후 과정 관련 개선 요구

운영 내용에서의 최우선순위 개선과제와 차순위 개선과제

운영내용 우선순위 과제	전체	운영 또는 이용 주체별						지역 규모별		
		국·공립 원장(감)	사립 원장	국·공립 담당	사립 담당	국·공립 학부모	사립 학부모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지역
방과후 과정 내에서 특성화프로그램은 학습 중심 활동이 아닌 유아 발달과 흥미를 고려한 활동으로 운영한다.										
방과후 과정에서 유아-교사 상호작용을 강조한다.										
방과후 과정에서 유아-또래 간의 협력, 상호작용 등을 강조한다.										
유치원 특성에 맞는 특색 있는 방과후 과정 운영을 장려한다.										
방과후 과정 운영 평가 및 환류 체계(평가 결과를 운영에 다시 반영하는 체계)를 확립한다.										
놀이 중심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방과후 과정을 운영한다.										
방과후 과정 시간을 탄력적으로 재조정한다.										
희망하는 모든 유아가 방과후 과정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주: 최우선순위 개선과제는 파란색으로 표시되었으며, 차순위 개선과제는 회색으로 표시되었음.

### 3-2. 유치원 방과후 과정 관련 개선 요구

방과후 과정에서 가장 강조되어야 할 내용(1+2순위) 관련 인식 차이

단위: %(명)

구분	방과후 과정 가장 강조되어야 할 내용								계(수)
	유아의 흥미에 따른 자유 놀이	기본적인 생활습관 태도 형성	다양한 체험 활동	유아와 교사의 긍정적인 상호작용	또래와의 긍정적인 상호작용	학교 교육과정을 대비하는 학습	건강하고 균형 잡힌 급·간식 제공	편안한 휴식	
전체	51.6	19.3	36.3	15.9	37.6	9.8	11.0	18.5	(2093)
원장(감)	<b>60.5</b>	16.3	28.6	11.2	35.9	3.8	12.5	<b>31.2</b>	( 552)
담당 인력	<b>68.0</b>	17.1	17.0	14.7	38.5	1.7	11.0	<b>32.0</b>	( 525)
학부모	38.2	21.9	<b>50.5</b>	19.1	38.1	17.3	10.2	<b>4.6</b>	(1016)

처음에는 그냥 안전하게 편하게 잘 놀다가 오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아이가 이제 여섯 살이 되니까 거기는 사실 집에 오면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방과후 과정에 **다양한 활동**이 있으면 너무 좋을 거 같아요. (학부모 9)

대부분 부모님이 집에서 해줄 수 없는, 쉽게 접하지 못하거나 시간과 거리상 하기 어려운 그런 것들을 다 해줬으면 하고 바라는 거 같아요. **가정에서 해줄 수 없는 거**. (학부모 3)

제가 일을 하다 보니까 집에서 제가 뭐를 해줄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방과후 특성화를 되게 만족하고 있거든요. **다양하게 경험을 해보는 거**에 대해서, 아이도 좋아하고 즐거워하고요. (학부모 2)

유치원 간 이후로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다양한 특성화가 있어서**, 맞벌이 가정은 그런 것 같아요. 학원을 안 보낼 수 있게 다 해주는 그런 곳을 선호하죠. (학부모 4)

실질 같은 거는 집에서 해줄 수가 없잖아요. 제가 간단한 건 해줄 수 있지만, 그리고 체육이나 영어 같은 것도 제가 물론 책 읽어줄 수 있지만 그래도 외부 강사님 전공하신 분이 와서 해 줬으면 좋겠고요. 그런 게 다 **특성화프로그램**이랑 좀 연계가 되는 것 같아요. (학부모 1)

### 3-2. 유치원 방과후 과정 관련 개선 요구

운영 체계에서의 최우선순위 개선과제와 차순위 개선과제

운영체계 우선순위 과제	운영 또는 이용 주체별						지역 규모별			
	전체	국·공립 원장(감)	사립 원장	국·공립 담당	사립 담당	국·공립 학부모	사립 학부모	대도시	중소 도시	읍면 지역
유치원 현장이 교육활동과 돌봄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강화한다. *급·간식 위탁업체 선정 및 관리, 지역사회 일자리 창출 사업과 연계 등										
교육(지원)청별 방과후 과정 담당 인력으로 상시 활용이 가능한 인력풀을 구축한다.										
방과후 과정 운영을 담당할 정교사 정원을 확보한다.										
방과후 과정 담당 인력의 전문 역량을 강화한다.										

주: 최우선순위의 개선과제는 파란색으로 표시되었으며, 차순위 개선과제는 회색으로 표시되었음.

15

### 3-2. 유치원 방과후 과정 관련 개선 요구

전문적이면서 안정적인 방과후 과정 담당 인력

방학 때 한 번 아이를 데려다 주려고 교실까지 간 적이 있었는데 방과후 선생님이 정규 수업 때 계셨던 방과후 선생님이 아니라 **방학 때는 또 새로운 선생님이 오시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아이들이 되게 어색해하고 불편해하는 거예요. 그 선생님이 나쁘시거나 그러신 분이 아닌데도 이제 아이들은 익숙하지 않고 낯선 거죠. (중략) 방과후 과정에서 방학 때 연결성이 좀 있으면 좋겠어요. (학부모 7)

저도 **방학 동안 선생님이 바뀌는 것은 좀 개선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아이들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는 분이 오시는데 게다가 학부모하고도 교류가 없었던 분이 오시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하고 어느 정도 알 만하면 또 가셔야 하고, 프로그램도 없고 그런 상황에서 모르는 분이 그렇게 와있고 하니깐 너무 괴리가 크더라고요. (학부모 9)

다른 학부모님들 말씀하신 것 같이 **방학 때 선생님 바뀌고** 이런 것들에 아이들이 되게 적응하기를 힘들어해요. (학부모 10)

학부모님들의 요구는 **방과후도 교육과정 교사하고 큰 차이 나지 않게 운영**하는 것을 가장 원하세요. (중략) 저희 같은 경우에는 연수를 교육과정 문화 체험이든 일반 연수든 보낼 때 전담사 선생님들은 오전에 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고요. (원장 10)

놀이 중심은 이제 방과후 과정에서도 가져가야 해서 **전문인력이 꼭 필요**하다고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원장 9)

16

# 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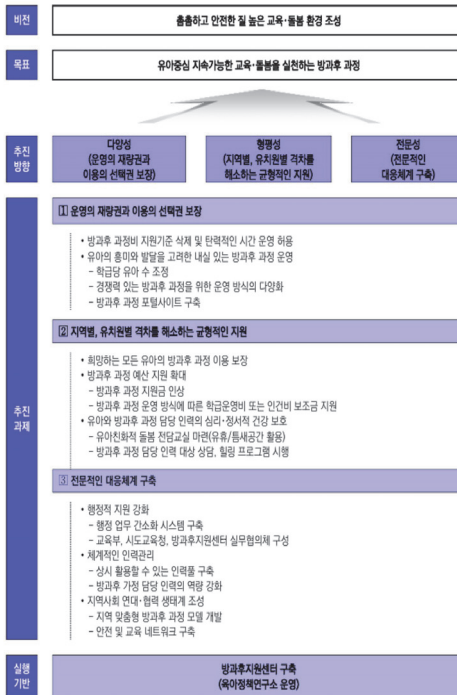
## 유치원 방과후 과정 정책 방향 및 추진과제

### 4. 정책 방향 및 추진과제

#### 방과후 과정

- 기관 운영·이용에서의 중요성 증대
- 특성화프로그램 운영 기능
- 방과후 과정 담당 인력 다양
- 현안 대응 및 문제 해결 방안 공유를 위한 실무협의체 구성 필요

▶ 컨트롤타워 역할의 기구 필요



#### 4. 정책 방향 및 추진과제

유치원 방과후 과정 지원체계 구축

#### 2024년 추진

프로그램 질 제고 및 다양화	담당인력 연수 및 역량 강화	방과후 담당 인력풀 구축	데이터 기반 방과후 정책 수립 지원	시도교육청 업무담당자 협업 네트워크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프로그램 발굴·확산</li> <li>프로그램 질 관리</li> <li>방과후 특성화프로그램 개발</li> <li>운영 모델 개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연수자료 개발</li> <li>중앙 및 권역별 연수</li> <li>방과후 컨설팅 지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인력풀 구축</li> <li>타 부처 인력 연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데이터 구축</li> <li>정책 성과 및 이행점검</li> <li>제도개선 과제 발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네트워크 운영</li> <li>운영사례, 현안 공유</li> </ul>

감사합니다.



2부

---

전문가 토론





# 0세부터 11세까지, 교육·보육 정책의 동향

김수현 | 사무관 (교육부 영유아정책총괄과)

## 1. 지역 기반 교육 정책 관련 동향

몇 해 전 기초지자체와 교육지원청이 협력하여 결합된 조직을 꾸리고 지역 초·중등학교 교육을 함께 지원하는 미래교육지구 사업이 시작되었다. 이후 교육부에서는 교육청만이 아닌 지자체를 교육 지원을 위한 직접 협력 파트너로 구성하는 사업(고교학점제 선도지구, 직업교육 혁신지구 등)이 꾸준히 증가해왔다. 최근에는 교육발전특구와 지자체-대학 협력 기반 대학혁신지원사업(RISE)을 현 정부의 핵심 교육개혁 과제로 추진 중으로, 지역의 아이를 지역에 정주할 인력으로 양성한다는 목표 아래, 교육청-지자체 또는 지자체-대학으로 구성된 “지역 플랫폼”이 영유아부터 고등교육, 평생 교육까지 연속적으로 교육을 지원하고 있다.

## 2. 늘봄학교 관련 동향

늘봄학교는 현 정부의 핵심 교육정책으로서, '24년 1학기 전국 초1 2천여개교, 2학기 전국 초1 6,100개교, '25년에는 전국 초 1-2학년까지 확대 예정이다. 늘봄 정책의 주요 요소 중 하나는 학생에게 “매일 2시간의 양질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교육부에서는 양질의 프로그램 발굴·공급 확대를 추진 중으로, '24년 1학기에는 대학 등을 공모를 통해 선정하여 초1맞춤형 프로그램을 시범 개발·공급하는 사업을 시작했다. 또한, 각 부처에서 그간 개별 추진해온 교육사업(과기부-SW인재양성, 특허청-발명교육 등 다수) 중 양질의 프로그램이 늘봄학교에서 제공되도록 부처 간 협업 체계를 구축·운영하고 있다.

## 3. 방과후 과정 관련 동향

2022 유아교육실태조사에서 학부모가 가장 개선을 바라는 항목 1위는 “유치원 방과후 과정 확대” 였다. 6.27에 발표한 유보통합실행방안에서는 유치원 방과후 과정의 돌봄 기능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결정되었다. 8+4의 기본운영시간과 연장 과정을 통해 어린이집과 유사한 수준으로 돌봄을 보강하고, 방학 중에도 방과후 과정 참여를 보장할 예정이다. 이러한 운영 시간 확대가 가능하도록 인건비 측면의 투자도 병행해나갈 예정이다.

# ‘유아보육·교육’ 정책과 과제에 대한 질문과 제안

김민희 | 교수 (대구대학교 교직부)

## 1. 3개의 발표문에 제시된 내용 중심 질문과 과제

### 가. ‘지역기반 교육력 제고’가 가능할까 : 지역인가, 지방인가

- 지역이 아니라 ‘지방’으로 양분화 된 패러다임 : 사회구성원들은 서울과 수도권 외의 다른 곳은 모두 ‘지방’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지방은 떠나야 할 곳으로 준비하는 곳(부모는 못 떠나도 자녀는 서울로 대학을 보내려는 심리). 실제 ‘지방’에 사는 상위 10%는 중학교 때부터 상급학교를 찾아 지역을 떠나는 패턴
  - 아이는 떠나지만 부모는 나중에 돌아가서 살고 싶은 곳으로서의 지방
  - 이제는 글로벌시대가 되어 해외에 거주하는 자녀들이 늘어나는 추세
- 아이가 아니라 ‘부모’의 일, 삶을 들여다보아야 하는 이유 : 양육자, 보호자로서의 부모 뿐 아니라 ‘삶의 주체로서의 부모’가 살아갈 수 있는 조건이 마련되어야 함.
  - 부모에게도 주거, 교통, 의료, 복지는 필수 조건
- 지역교육협력은 최소한의 ‘안전망’일 뿐 최종 목적지는 일자리, 정주여건 개선
- ‘영-유아-초-중등-대학-평생’의 통합적 삶의 경로 속에서 지원 방안을 모색해야 함. 나아가 노동시장의 근무 유연성, 지속성이 함께 담보되어야 가능한 일임.
  - 미래교육지구, 교육발전특구, RISE, LiFE 사업 등 ‘주민 중심 통합재정 운영 방식’(현행 개별 사업 중심의 성과평가방식 개선 전제) 도입의 이유
  - 고용 시 직장 유연근무제, 휴직, 재택근무 등 차별받지 않는 제도 정착
- 지역기반 교육력 제고는 그 지역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자부심, 자긍심, 시민의식, 신뢰, 안전(safety), 투자로 인해 견고해져 가는 것임: 이것이 있는가?

### 나. ‘문화’자본과 실제 ‘향유’ 여부가 격차를 가져오는 요인

- 시골에 살아도 도시를 지향하는 삶 : 교통수단의 발전이 지역 격차를 가속화시키고 있는 아 이러니, 모든 원하는 환경과 인프라가 서울과 대도시에 집중 : 사회관계망(SNS)의 발전은 서울과 수도권 집중을 부추기는 요인
- 경제적(집값, 교통·생활비 등)으로 어렵더라도 좋은 일자리와 문화가 있는 곳으로 이동하는

청년들(미래 부모)의 심리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음.

#### 다. 행정구역 개편-대도시 중심의 사회시스템 혁신 필요

- 현재의 특별시-광역시-시·도-시·군·구 행정체계의 비효율성: 소멸도시라는 낙인효과, 모든 행정 운영의 비효율성 및 이기심 초래
  - 모두가 특별자치(시·도), 특구로 지정되거나, 초광역을 허용하지 않는 사업구조
- 행정구역 통합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되, 대도시 중심으로 인프라 집중
  - 사람이 살지 않는 곳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흐름(예시. 호주, 핀란드 등)을 수용
  - 생활인구 개념의 적극 도입으로 지역을 넘나드는 다양한 행·재정적 혜택 지원

#### 라. 다문화사회(이주배경 인구)증가에 대비하기 위한 통합/포용 시스템

- 사회 변화 중 향후 가장 크게 마주할 변화는 '다문화' 국가로의 이행임.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다문화사회에서 살아가야 할 준비가 되어 있지 못함.
- 다문화사회에서 자라나는 영·유아, 초·중등 학생들, 학교밖청소년 등에 대한 지원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어야 함. 통합과 포용성 중심의 프로그램 및 모든 제도와 행정적 요소에 다문화 감수성이 반영될 필요가 있음.
  - 다문화사회를 준비하는 국가의 운영 방향은 어떻게 정립되어 있는가?
  - 유치원 방과후과정과 늘봄학교에는 이러한 내용이 얼마나 있는가?
  - 언어 및 학업지원을 통해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며 기회를 제공해야 할 필요

## 2. '사람'과 '돈'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 팀이기주의(칸막이행정, silo effect) 극복 : 직무 다변화 및 유연성(AI 활용)으로의 인식 전환, 하이브리드 조직이 가능한 조건
  - 현재보다 훨씬 더 직종별/업무별 임금테이블이 분화, 정교해져야 할 필요
  - 지역주민의 영유아/보육/늘봄 등예의 참여 기준 완화 및 확대 필요
  - 영유아/보육/늘봄 등 재정 확보의 안정성 및 충분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 도출을 위한 주기적 포럼/세미나 등 개최
- 관련 예산의 통합집행 가능성 : 법령 개정 필요
  - 지역의 예산 활용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되, 지역간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가의 역할 강화, 관련 데이터 확보, 분석 기능 필요

## 저출생과 인구감소 시대 학교의 변화와 과제

김성식 | 교수 (서울교육대학교 초등교육과)

최근 저출생 현상이 심화되고 인구감소 현상이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인구감소 시대는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것보다 인적 자원이 적어지기 때문에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일을 해야 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자녀를 둔 가정에서 보면 부모 모두 일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져서 자녀 양육과 돌봄이 소홀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사회적 변화는 학교의 기능과 역할 변화로 이어질 수 있다.

그 중 하나가 학교에서 방과 후 시간에 교육과 돌봄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미 오래전부터 교육적 성격이 강한 방과후학교와 돌봄 성격이 강한 돌봄교실이 방과 후 시간에 도입되어 운영되고 있다. 학교에서 제공되는 방과 후 활동들을 학교가 담당해야 하는 일인가 하는 문제 제기도 있기는 하지만, 사실 현실 속에서 교육과 돌봄은 무관하지 않다. 교육이 이루어지는 동안에는 돌봄이 실현될 수 있고, 돌봄이 이루어지는 동안에도 교육이 발생할 수 있다. 이는 학교 본연의 기능인 교육 활동을 잘 하기 위해서라도 교육 이외의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학교가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새로운 역할을 추가 실행하는 것을 넘어서는 변화가 필요하다. 무엇보다 학교가 학생들이 생활하는 공간으로 변화될 필요가 있다. 학교는 형식 교육이 제공되는 곳으로 정규 교육과정을 잘 실행하도록 매우 조직화 되어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교육 이외의 다른 활동들은 실행할 때 불편함과 어려움이 따른다. 그렇다고 이것이 학교가 교육과 정규 수업을 소홀하게 해도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학생들이 학교에서 머무르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학교는 학생들이 생활하는 공간이 될 수밖에 없으며 가정에서 공부하거나 일하는 공간과 쉬는 공간이 모두 갖추어 있듯이 학교도 여러 기능의 공간이 균형 있게 확보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학교는 교육 조직의 특성 때문에 어떤 활동이든 체계화하고 프로그램화하는 경향이 강하다.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처럼 학교에서의 ‘돌봄’은 형식적인 교육 활동을 중심으로 이루어질 때 강점이 발휘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돌봄도 또 다른 프로그램처럼 운영되는 경향이 강한데 돌봄을 프로그램처럼 운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이다. 학교에서의 돌봄은 형식적인 교육 활동이 이루어지지 않는 시간에 아동들이 스스로 공부를 하거나 쉬면서 또래 친구들과 놀이를 할 수 있도록 안전한 공간과 시간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다. 이는 하나의 교실을 쉽고 돌봄을 위한 공간으로 바꾸는 것보다는 좀 더 전체적이고 근본적인 변화를 필요로 한다고

볼 수 있다.

저출생과 인구감소가 지속될 경우 앞으로 교육은 그동안 해왔던 것처럼 많은 학생들 중에서 우수 인재를 선별해 내는 것보다는 모든 학생의 발달과 성장을 책임지는 것에 대한 요구를 좀 더 받게 될 것이다. 모든 학생들의 성장을 이끌어 내는 학교교육이 되기 위해서는 기존의 좁은 의미의 '교육'활동 이외의 어떤 기능과 역할이 요구되는지, 그런 기능과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학교 본연의 모습을 상실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변화해 나가야 하는지 등에 대한 성찰과 고민이 필요하다.

# 저출생 시대, 아동의 유망한 미래를 위한 정책의 방향성

권혜진 | 교수 (나사렛대학교 아동심리교육학과)

## 1. 저출생 시대, 아동의 현재

우리나라 아동의 삶의 질, 아동행복지수 등 관련 연구 결과는<sup>1)</sup> 저출생 시대를 살아가는 아동이 행복하지 않으며, 지역 간, 계층 간 격차가 크다고 보고하고 있다. 덜 행복하다고 느끼는 아동일수록 수면시간과 운동시간이 부족하고 혼밥을 하고, 미디어를 들여다보는 시간이 크고, 학교 밖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고, 학교 밖에서의 학습 시간이 많았다<sup>2)</sup>. 또한 이러한 조사는 주로 10세 이상 아동 지표를 중심으로 작성되어 어린 아동과 영유아의 웰빙은 다루고 있지 않다. 아동은 저출생 위기 및 대응 방안 논의 과정에서 미래 자원으로 대상화하는 것을 경계해야 하며 아동의 '유망한 미래'에 대한 제안의 준거는 아동의 삶의 질과 행복이 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행복하지 않은 아동이 미래에 행복할 수 없다. 아동의 삶의 질과 행복을 구성하는 주요한 요소는 안전한 환경, 의미있는 관계, 풍부한 경험 가능성일 것이다. 저출생 시대를 살아가는 아동의 현재를 살펴보고 결핍된 것은 무엇인가를 파악하고 이를 충족시켜주어야 한다.

## 2. 아동권리 관점을 반영한 교육력 제고

저출생 시대의 아동을 지원하는 정책은 유엔아동권리협약의 네 가지 주요 원칙인 비차별 원칙, 아동이익 최우선 원칙, 생존 및 발달의 원칙, 아동의 의견 존중 원칙 등을 정책 제안 및 평가에 반영되어야 한다. 아동의 삶의 질 관련 조사 결과들은 우리나라 아동이 행복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삶의 질에서 격차가 많다고 보고하고 있다. 주제발표 1에서 영유아 교육력 제고의 방안으로 '마을'에서 영유아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과 지역이 협력하고, 이를 위해서 지역사회의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을 제안하고 있는데, 이러한 제안은 저출생 시대 아동에게 결핍된 부분을 보완해주어 격차를 해소하고 건강하게 성장 발달하는 힘을 키워줄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아동의 삶의 질 관련 조사 결과 지역적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에 좀 더 초점을 두어 지역 기반 프로젝트들이 실질적으로 아동의 삶

1) 2021년 기준으로 보면, 한국은 세이브더칠드런의 '국제 아동 삶의 질 조사'에서 35개국 중 31위였다.

2)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이 2023년 12월 초등학교 1학년~고등학교 2학년 학생 1만14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2024 아동행복지수'에서 나타난 결과이다. 우리나라 아동이 행복지수는 45.3점(100점 만점)이었다.

의 질과 행복에 기여할 수 있어야 교육력이 제고될 수 있을 것이다. 교육력<sup>3)</sup>이란 ‘지식과 기술 따위를 가르치며 인격을 길러 주는 힘’으로, 교육력을 제고한다는 것은 사회적 제도로서의 교육이 구성원이 성장할 수 있도록 긍정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한다는 의미일 것이다.

UNESCO(2021)는 ‘함께 그려보는 우리의 미래: 교육을 위한 새로운 사회계약’을 주제로 하는 국제미래교육위원회보고서에서 교육을 공동재(a common good)로 바라볼 것을 요청하고 있다. 공동재로서 교육의 본질적 특성은 “인간을 타인과, 그리고 세상과 접촉하게 함으로써 공동으로 경험되는 것이며, 교육기관에서 교사, 교육자, 학습자가 함께 모여 나누는 공유된 활동은 개인적인 동시에 집단적인 활동(UNESCO, 2021:14)”이다. OECD의 Education 2030 1주기 사업(2015~2018)에 제시된 미래사회에 요구되는 역량을 담은 학습개념틀(Learning Framework)에서도 교육의 목적으로 개인과 사회의 웰빙과 학생의 행위주체성을 제시하고 있다. 학습자의 행위주체성(student agency). 이는 학습자가 자신 주변의 일에 관심을 갖고 책임감 있게(자기 행동의 단기적·장기적 영향력을 고려하면서 성찰적으로) 생각하고 참여함으로써, 자신의 행복뿐만 아니라 사회(주변 사람들, 현상, 환경)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OECD, 2019).

### 3. 돌봄과 교육의 통합을 통한 교육력 제고

주제발표 2 돌봄학교, 주제발표 3 영유아 방과후 과정 지원체계 역시 아동의 전인적 발달을 도모하는 교육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는 매우 중요한 교육력으로 작용하려면 거버넌스간 협력 및 학부모, 담당 인력간의 협력이 관건이 될 것이다. 관련하여 우려되는 바는 유보통합 논의 및 초등 돌봄정책을 둘러싸고 ‘돌봄은 교육의 영역이 아니다’, ‘교육과 돌봄은 다르다’와 같은 돌봄과 교육을 분리하여 보고자 하는 이원화 주장이 확대, 재생산되고 있다는 점이다. 돌봄과 교육을 분리하여 사고하는 바탕에는 교육이란 주로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전문가인 교사의 수업을 통한 학습자의 지적 성장과 관련된 것이라는 관점이 깔려있다. 이러한 관점의 연장선상에서 돌봄은 교사가 아닌 사람에 의해 학교가 아닌 곳에서 주로 신체적인 보호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고자 한다. 돌봄과 교육을 이분법적으로 보는 관점은 행정편의적, 공급자중심적, 성인중심적 관점에서 만들어낸 구분이다. 아동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돌봄’과 ‘교육’을 분리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바람직하지도 않다. 아동은 기관과 학교의 교육과정에서 돌봄과 교육을 통합적으로 경험하므로, 방과후 과정, 돌봄학교 역시 교육과정의 틀 안에서 구성되고 운영되어야 한다.

현재 돌봄학교, 영유아 방과후 과정 역시 교육의 궁극적인 목적 속에서 바라보고, 학습자인 아동의 경험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한다. 돌봄학교, 영유아 방과후 과정이 이 공급자 중심으로 설계되

3) 교육력의 사전적 정의는 ‘지식과 기술 따위를 가르치며 인격을 길러 주는 힘’(네이버사전)으로 되어있다. ‘한국의 교육력 진단과 개발 모색’ 학술포럼에서는 ‘교육력(教育力) 개념을 ‘교육이라는 행위나 활동이 발휘하는 힘 또는 영향의 뜻’과 ‘사회적 제도로서 교육이 지닌 역할이나 기능적 위세의 뜻’의 두 가지 차원에서 설명하고 있다.

출처 : 에듀인뉴스(EduinNews)(<https://www.eduinnews.co.kr>).



고 있으며, 아동이 어떤 경험을 하는가에 대한 내용에 고민은 부족해 보인다. 놀봄학교, 영유아 방과후 과정의 내용은 때로는 부모의 필요, 때로는 사교육 경감 대책 등 성인에 의해 ‘추정된 필요(inferred needs)’(Noddings, 2008)로 구성되고 있다. 아동의 입장에서 보면 학교를 마치고 또 다른 학교에 등교하는 것이 될 수 있다. 저출생 시대를 사는 아동들의 삶에서 부족한 것, 그리고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동의 ‘표출된 필요(expressed needs)’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아동이 하루 동안 평안한 수평적 전이를 경험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한다. 사교육을 학교나 기관 내에서 해결하는 시간이 아니라 쉽이 있고 의미있는 관계를 경험하고 다양하고 풍부한 경험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연령이나 발달수준에 따라 적정한 생활시간(필수시간, 학습시간, 여가시간 등) 구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이를 반영하여 전체적인 교육과정 및 내용을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영유아 및 초등교육과정이 구성될 때 교육은 교육력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교육에 있어서 모든 결정의 기초는 현재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성장해가는 힘’이라는 듀이의 주장(Dewey, 2002)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

## 현실에 맞닿아 있는 정책인지 점검이 필요하다

이혜민 | 부모

늘봄학교와 유치원 방과후 정책 발표문을 들으면서 첫째 아이 때 느꼈던 문제점들이 개선되고 있다. 둘째 아이는 좀 더 나은 환경에서 키울 수 있겠다는 희망을 가지며, 좀 더 개선될 수 있는 지점들이 무엇인지 학부모의 입장에서 토론해보고자 한다.

### 1. 늘봄학교가 전학년에게 필요한가?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면서 가장 무서웠던 것은 아이의 적응이나 학습에 대한 것이 아니다. 생각보다 빨리 끝나는 학교 정규교육시간이다. 1시도 되지 않아 끝난다고? 내가 어릴 적도 이렇게 빨리 끝났나? 라는 생각뿐이었다.

물론 아이들 입장에서는 기본교육과정 시간이 길게 느껴지겠지만, 부모의 입장에선, 더더욱 맞벌이 부모의 입장에서는 5시까지 어떻게 시간을 보내야 할까 고민이다. 이런 차원에서 늘봄학교 운영은 부모에게 반가운 정책이 아닐 수 없다. 방과후 과정, 학원을 간간히 섞으면서도 공백시간에 가 있을 만한 곳으로 돌봄은 초등학교 저학년에게 반드시 필요하다. 학교마다 다르겠지만 추첨을 통해 선발되는 돌봄이 희망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제공되는 것은 부모들의 입장을 매우 고려해준 정책이라고 평가한다.

다만, 전학년에게 제공하는 방향이 맞는지는 의문이다. 고학년이 되면 교육에 좀 더 집중되는 시기다. 그리고 돌봄의 영역에서도 조금 벗어나는 시기라서 늘봄학교에 고학년에 남아 있을까? 라는 의문이다. 지금의 돌봄교실에 고학년이 있는 경우 인적 자원과 물적 자원의 대안이 없는 경우라고 생각되는 것이 현실이다. 물론 정책에 있어 포괄성은 중요한 개념이지만 효율성과 현실성 차원에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 2. 어떤 프로그램이어야 하는가?

다양한 방과후 과정 프로그램이 있다. 강좌 개설 후 제시된 설명을 읽어보면 정말 학습적으로 도움이 될 것 같다. 그런데 아이들이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첫째 아이가 초등학교 3학년이 되자 학교 돌봄과 방과후 과정을 모두 끊었다. 시시하다는 이유다. 물론 내 아이의 특성일수도 있지만 주변을 살펴봐도 고학년이 되면 더 이상 학교 프로그램을 좋아하지 않는다.

그런데 우리동네 키움센터를 다녀온 후 여기를 다니고 싶다고 한다. 아이들은 우선 재미있어야 한다. 그런데 학교에서 운영하다 보니 '교육'이란 차원에 너무 무게를 두고 프로그램이 개발되어 역효과가 난다고 생각한다. 교육의 큰 의미는 인간이 삶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행위를 가르치는 일 이 아닌가? 놀면서도 충분히 교육이 될 수 있다. 놀봄학교의 프로그램은 재미가 1순위가 되어야 할 것이다. 교육적인 것도 필요하지만 대부분의 엄마들은 어쨌든 아이들이 좋아하면 다 괜찮다.

모든 정책의 취지와 방향은 대부분 옳다. 하지만 현실과 맞닿아 있는가? 라는 질문에는 쉽게 답 하기가 어렵다. 물론, 다양한 관계와 상황을 고려할 수밖에 없지만, 정책의 수요자인 아이들의 목소리는 항상 뒷전에 있는지도 모른다. 이 자리를 계기로 내 아이의 목소리를 떠올려 보았다. 이런 기회를 주심에 감사하고, 부모들이 정말 현실적으로 바라는 정책으로 실현되어지기를 바라본다.





2024년 제2차 육아정책 심포지엄

저출생 시대, 아동의 현재  
그리고 유망한 미래를 위한  
정책 다지기



육아정책연구소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